

# 독일 Proletariats의 탄생

韓 基 榮

## 目 次

- |                              |             |
|------------------------------|-------------|
| I. 서 언                       | IV. 겨울밤의 동화 |
| II. 사회적, 경제적 배경              | V. 결 론      |
| III. W. Weitling 과 A. Becker |             |

## I. 서 언

Proletarier 라고도 하고 Proletariat 라고 불리우는 무산계급 또는 노동자 계급의 정의를 먼저 살펴 보겠다.

Proletarier 는 그들 노동의 댓가로 매일 매일의 임금을 받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고용 계약에 의존하는 사람들, 매일 매일의 노고(勞苦)의 결과로서 단지 조그마한 부분 — 그것도 경쟁으로 인해 끊임없이 줄어들게 되는 — 을 버는 사람들, 불확실 하고 무질서한 산업 활동 처럼 변하기 쉬운 희망속에 그들의 내일을 기대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나이를 먹어서 (노령이 되어) 유일한 탈출구를 일찍 죽는 것으로서 혹은 어느 자선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염려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sup>1)</sup> 여기에서 Jean Reynaud 는 산업의 의미를 농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 (Industrie hier im umfassenden Sinn) 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론에서는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이른바 Marxist 의 이론 즉 “수입의 주된 원천이 그들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산업 생산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 계층”을 뜻하는 Proletariats 로 국한시켜 따라서 이는 어디까지나 농촌의 현상이 아닌 도시의 현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또한 Lumpenproletariat 라든가 흔히 이야기 하는 The Working Classes (농촌노동자 혹은 white-collar workers 를 포함하는) 를 제외시키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닐수 없다.

---

1) Jean Reynaud, Proletarier und Bourgeois, in Die Frühen Sozialisten; Herausgegeben von Frits Kool und Werner Krause, Walter-Verlag Olten und Freiburg im Breisgau, 1967. S. 288.

1840 년대의 독일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살펴 독일 Proletariats의 형성을 밝히고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직접 지켜 보았던 많은 증인들(시인, 학자, 정치인, 언론인) 가운데서 몇 사람 특히 Heine의 관련 작품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유추하려고 하며 무엇보다도 이들 Proletariats 형성기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W.Weitling과 A.Becker의 사상을 살펴려고 하는 것이 본론의 목적이라 하겠다.

## II. 사회적, 경제적 배경

세계 무역의 큰 항로였던 대서양으로 부터 독일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과 16세기 부터 19세기 초까지의 끊임 없었던 전쟁은 독일의 산업 발전을 지연시키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했다.<sup>2)</sup>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독일은 산업혁명의 시기가 늦었고 19세기 중엽까지 독일은 39개의 영방국(39 Staaten des Deutschen Bundes)으로 분열되어 있으면서, 영토지배에 대한 불합리한 분산책, 농업과 상업을 압박했던 봉건적 속박 그리고 무지하고 불손한 관료제가 잔존하여 전국민적인 기초 위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독일의 산업혁명 시기를 1840~1850년 경을 시발기로 한다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것 같다. 참고로 W.W.Rostow가 제시한 몇 개 국가의 시험적 개괄적인 경제 도약 시기에 관한 도표를 아래에 제시하겠다.

As indicated in the accompanying table, we believe it possible to identify at least tentatively such take-off periods for a number of countries which have passed into the stage of growth.

TABLE 1. *Some tentative, approximate take-off dates*

Country	Take-off	Country	Take-off
Great Britain	1783-1802	Ruasis	1890-1914
Frunce	1830-60	Canada	1896-1914
Belgium	1833-60	Argentin	1935-
United States	1843-60	Turkey	1937-
Germany	1850-73	India	1952-
Sweden	1868-90	China	1952-
Japan	1878-1900		

2) Max Quarck, Die Erste Deutsche Arbeiterbewegung, Verlag von C.L. Hirschfeld, Leipzig, 1924. S. 7f.

Helga Grebing이 그의 저서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 1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1850년 전의 독일의 사회와 경제”를 살핌으로써 보다 빠른 이해에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세기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상황의 중요한 요인은 -유럽 전체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놀라운 인구 성장이었다. 1914년을 경제선으로 해서 봤을때 독일의 인구수는(단위:백만) 1800년 24.5 : 1830년 29.6 : 1850년 35.4 : 1870년 40.8 : 1890년 49.5 : 1910년 64.9 : 1914년 67.8 : 1925년 67.4 : (Elsaß-Lothringen 제외)이며 따라서 125년 내에 2.5배 상승했으며 1816년에서 1845년 사이의 인구 증가율은 (24.8에서 34.4로) 38.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인구 증가율을 몇가지 요인으로 요약 하면 아래와 같다. ① 좋아진 위생시설과 의학의 발전에 따른 사망율의 저하 ② 합리적이고 다양한 영양 공급, ③ 유아 사망율의 감소로 인한 출생율의 증가, ④ 동Preußen에서의 농민해방과 영업의 자유에 따른 결혼의 증가등을 들수 있다. 인구의 폭발은 특히 동Preußen의 농업지대에서 들어 맞으며 농민해방(Preußen에서는 1807년과 1850년 사이)과 관련이 있다. 개혁을 근거로 Preußen에서는 세습적으로 예측되어 있었던 농민들의 부역 면제와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제한된 소유권이 자유로운 소유권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가 소유한 토지의 반을 지주에게 넘겨 주거나 세금을 물어야만 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다수의 농민들이 남아있는 토지나 혹은 부채를 안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는 더이상 충분한 생계를 영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종종 그들은 10년간이나 생존의 한계점에서 어렵게 살아야 했고 그들이 획득한 자유를 행사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서서히 새로운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습득하기 시작하거나 근대의 화폐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더이상의 별이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들의 토지를 지주에게 팔아버리고 기껏해야 소작인이 되는것이 고작이었다. (um dann bei ihm bestenfalls Pächter zu werden. ) 개혁에서 제외되었던 소농민들은 토지가 몰수되어 지주로 부터 독립하면서 농업노동자가 되는 길밖에 없었다.<sup>3)</sup> 농업노동자의 형성은 자본주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임금노동자의 순수형은 아니었고 여러가지 특징을 가진 과도기적인 존재형태였다. 농업노동자도 다시 영세농과 무산자로 구별되는데, 서Elbe에서는 영세농이 많아 전형적인 농업노동자였고 동Elbe에서는 토지를 뺏긴 소농민 즉 무산적인 농업 노동자가 전형적이었다. 이리하여 독일·Preußen에 있어서도 후진적이고 과도적 형태나마 Junker -농민-농업노동 자라는 농업의 자본주의적인 3분제가 기형적으로 성립되었다.<sup>4)</sup> 다시 Helga Grebing 에로 돌아와, 그래서 -東Preußen 농업지역에서 특히 현저하게- 대지주층과 이미 굳혀진 자영농민층 밑에 농촌의 하류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대토지에는 고용인, 영속적 농업노동자, 일시적 농업노동자가 있

3) W.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77, P. 38.

4) Helga Grebing,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81, S. 20f.

5) 임채원, 독일근대사 연구, 일조각, 1982, p.161.

었고 농촌 마을에는 빈한한 소농민, 날품팔이, 조각인, 머슴등이 있었다.(auf den Gütern das Gesinde, die Instleute, die Tagelöhner, auf den Dörfern die bäuerlichen Hintersassen, Büdner, Häusler, Eigenkätner, Einlieger.)

그들은 그들의 벌이와 손바닥 만한 토지의 생산물, 야원 암소 직업적으로 익힌 일들(어려한 일들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공업자와 경쟁을 했다.) 나무조각 모으기, 구걸, 도둑질 등으로 형편없는 삶을 영위해 나갔다. 노동시간도 12, 14, 16 시간으로 늘어났고 여자들도 아이들과같이 일해야 했고,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식구의 숫자를 증가시킨 반면 또한 수입의 증가를 의미했다.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이러한 운명으로 부터 거의 벗어날 수 없었다. 해외로의 이주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지불해야 할 경비를 고려할때 거의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였다. 동부 독일의 중소도시에서의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직업난, 그리고 1850년 까지도 서부 독일에서의 약한 산업화의 도움단계로 인해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없었다. 50년대에 와서야 광범위하게 시작되는 철로건설과 기타의 교통망의 건설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sup>6)</sup>

Nürnberg 와 Fürth 를 잇는 독일 최초의 철도(1835년)는 Leipzig - Dresden 으로 연결되었고 철도 길이는 1840년에 500 km, 1875년에는 28,000 km로 연장되었다. (Der ersten Eisenbahnstrecke zwischen Nürnberg und Fürth(1835) folgte die Verbindung Leipzig - Dresden. 1840 betrug die Streckenlänge 500 km, 1875 28,000 km)<sup>7)</sup>

또다시 Helga Grebing 에로 돌아와, 고정적 일자리(설혹 겨울에는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도)와 정기적인 노임(설혹 그것이 바람직 하지 못한 노동조건이라 할지라도)은 거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된 농촌의 하류층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것은 최저의 생존, 최저의 생활비(das Existenzminimum)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50년대에 시작하는 산업화는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60년대에는 점차로 농업노동력이, 동부로 부터, 산업화된 서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독일 농촌의 빈민층 외에도 도시에서는 수공업자들의 빈민층이 또한 있었다. 영업의 자유(Preußen에서는 1806년과 1810년 사이, 다른 지방에서는 대부분 그후에 도입)로 인해 엄격한 조합에의 가입과 규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조합은 단지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장인(匠人)의 수공업을 개업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다수의 도제(徒弟)들을 장인에 예속되게 만들었다.(가정을 가지기 위한 전제로서의 생활수단을 마련하지 못한채) 그래서 영업자유의 결과로서 자립적인 수공업자의 수가 상당한 수로 늘어났고, 또한 인구가 증가하게 되자 한 수공업 부문에 너무많은 수공업자가 종사하게 되었다.; 1,000 명의 주민에 장인과 도제의 숫자는

6) Helga grebing, Ibid., S. 21.

7) Rückert/Lachner, Grundriß der Geschichte, Band 2, Ferdinand Schöningh. Paderborn Blumenburg-Verlag München, 1971, S. 12.

1816년에 30.8명 1861년에는 59명이 되었다. 이들 독립된 수공업자들은 실제로는 대다수가 가내 노동자, 혹은 상점, 점포, 공장을 위한 수공업자이거나 혹은 수리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 독립 수공업자들은 시작하는 산업화의 경쟁외에도 대부분 그들의 작업시간을 무한히 연장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공장에 보내거나 손바닥 만한 토지에서 나는 야채, 감자, 그리고 과일에 의해 삶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sup>8)</sup> 그위에,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나, 재래의 형태속에서 그리고 소규모의 영업이 판을 치는 속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이 산업활동의 성장을 유지하고 존속시켜야만 했다. ……

건축 및 가재도구 산업부문이 번영하고 기계공, 철물공, 벽돌공, 석수 그리고 발전하는 사치의 수요에 응해 화장품 제조 여공들이 초기의 대공업에 종사했다. 대기업들이 이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경쟁이 시작된 사양(斜陽) 업종들은 철물, 선반, 유리, 비누제조업 제혁, 장갑제조, 모자제작, 도공업(陶工業), 난로 제조업등이었다. Meister(장인)의 경우처럼, 고용원의 숫자가 결과적으로 강하게 증가했으며, 이것은 노동자의 프롤레타리아화(Proletarisierung)의 시작을 암시했다. 대체로 수요가 많은 도시에서 개인기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여기에서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는 것 보다 기존의 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고 Meister(장인)와 Gesellen(도제) 사이의 관계는 협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대립이 첨예화 하기 시작했다.<sup>9)</sup> 또다시 Helga Grebing에로 돌아와, 많은 수공업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장인이거나 도제는 이제 는 마찬가지였다.— 무산 수공업 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장 노동자의 생활이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많은 수공업자들이 공장노동자로서의 전환이 가능했지만 또다른 수공업자들은 지방에서 상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이주했거나 혹은 잠시동안 다른 나라로 갔다. 그곳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경험이 고향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직업에 대한 운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는 Schlesien, Sachsen, 그리고 Westfalen에서의 방적공과 직조공들의 비참함이었다.<sup>10)</sup> 7월 3일 아침에 Katharinenberg의 일단의 노동자들이 집합했다. 그리고 그곳의 방적공들에게 그들과 합세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앓아간 새 방적기계를 파괴할것을 요구했다.

Sigmund Neuhäuser의 큰 공장에서는 5대의 새롭고 아름다운 기계들이 완전히 파괴되어 강에 던져졌다. 이제 군중은 Rosenthal의 Herrn Ginzel의 공장으로 향해 잠겨진 문을 부수고 3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기계들을 파괴했다. (1844년의 어느 신문보도에서)<sup>11)</sup> 또다시 Helga Gre-

8) Helga Grebing, Ibid., S. 21f.

9) Max Quarck, Ibid., S. 2f.

10) Helga Grebing, Ibid., S. 22

11) Rückert/Lachner, Ibid., S. 25.

bing)으로 돌아온다. 특히 Schlesien에서의 궁핍은 놀라울 정도여서 40년대에는 수천의 사람들이 발진티푸스(an Hungertyphus)로 죽어갔다. Schlesien에서의, 기아와 상인 및 도매상의 착취에 대항한 - 1844년 Peterswaldau와 Langenbielau에서 - 가장 컸던 봉기는 군의 힘에 의해 진압되었다. 산업화에 대한 수공업자의 경쟁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다음의 숫자가 가리켜 주고 있다. 1837년 Preußen에서는 419대의 증기기관이 사용되었는데 1849년에 와서는 1444대에 이르렀다. 도시와 농촌의 농민 또는 수공업자 출신의 빈민층에 비해서, 30년과 40년대의 공장노동자들은 더욱 나은 사회계층으로 간주되었다. 공장에서의 일자리는 최저 생활비의 확보와 개인적인 독립성, 가족을 가질수 있는 가능성등의 경제적인 안정성과 사회적인 안정된 위치를 제공해 주었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1850년 까지 독일에서의 산업화는 약한 도움단계 (schwache Ansätze)에 머물고 있었다. 즉 Krupp 회사는 1811년에 창설되어 7명의 노동자로 시작하여 1849년에는 80명이 일했고, 1857년에는 발전하여 1,000명의 노동자를 필요로 했다. (Borsig회사는 1839년 Berlin에서, Maffei는 1839년 München에서 Zeiss는 1846년 Jena에서 그리고 Siemens & Halske는 1847년 Berlin에서 창설됨) 이렇게 비교적 느린 발전은 전쟁, 약탈 그리고 군세(軍稅) 등에 의한 엄청난 자본의 손실 때문이었다. Preußen에서는, 예컨대 1830년에, 1805년의 당시 생활수준으로 다시 회복되질 못했었다. 노동력은 많은데 반해서 자본은 부족하고 생산수단은 모자랐다. 여기에다 덧붙여서 방적철도, 광산부문에서 영국·프랑스와는 경쟁이 되질 않았다. 1848년 이전 -예외가 있긴 하지만- 수공업에서 출발한 많은 기업가들은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먼저 스스로 배워야 했고, 그런다음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맡겨야만 했다.

많은 공장들, 특히 작은 공장들은 1850년 이전에는, 살아 남기 위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은 대체로 노동자들에게 지워졌고, 노동자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작업시간이 13, 14시간으로 늘어났고, 40년대에는 아주 나쁜 조건속에서 17시간 까지 되었다. 여자들과 아이들의 값싼 노동력은 임금을 압박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나쁜 주거 환경과 병과 노약, 사고에 대한 불충분한 배려속에서 일했다. 임금은 대부분 최저 생활비의 한계선에 놓여 있었고,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야 할점은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에 의해서만 생계를 꾸려간 것이 아니고 -적어도 중·소도시에서는 생계를 꾸려 나갈수 없었다.- 얼마 안되는 농사를 통해서 생활해 갔다. 노동자들에게 특히 어려운 점은 임금 대신 물건으로 주는 소위 "현물 임금 제도"이었다. (Für die Arbeiter besonders erniedrigend war das sogenannte Trucksystem in der Entlohnung.) : 노동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기업가들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사거나, 그들의 임금을 물건의 형태로 받거나, 혹은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임금 대신 받아서 그것을 다시, 높은 가격의 생활 필수품을 사기 위해, 싼값으로 기업가들에게 팔아야만 했다. 아이들은, 예를들면, Schlesien의 아마(亞麻) 공장에서, 약 4

년 동안 일했으며, 그들은 보통 성인과 같은 작업시간을 가졌다. 단지 보다 많은 휴식 시간만 가졌는데 그것도 휴식에 사용될수 없었고 학교수업에 사용되었다. — Breslau에서는 한방에 9 ~ 13명의 아이들과 5 ~ 7명의 어른들이 함께 기거하는 집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폐해에 대하여 국가는 2가지의 부분적인 측면에서 개입하게 되었다. 과도한 육체적 노동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육체적, 심리적 성장에 심한 장애를 가져왔고, 따라서 Preußen의 Horn 장군은 1828년 “공장지대에서는 육군 병력을 충분히 지급할 수 없다. (daß die Fabrikgegenden ihr Kontingent zum Ersatz der Armee nicht vollständig stellen Können...)” 라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0년 뒤인 1839년에 Preußen 육군의 존립에 대한 배려에서,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노동자 보호조치가 나오게 되었다.: 아이들은 9살 이후 부터야 공장과 광산에서 일할 수 있고 밤, 일요일 및 휴일에는 작업이 금지되고 그리고 10시간의 노동시간이 확정되었다. 1849년에는 Preußen과 Sachsen에서 Trucksystem에 대한 금지법률이 나타나게 되었다. 1853년에 나온 또 다른 Preußen의 법률은 공장에서의 어린이의 작업할 수 있는 연령을 12살로 높였고, 14살까지는 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한정했다.

Sachsen에서는 1861년이 되어서 비로소 10살 이하의 어린이의 공장노동을 금지시켰고 사고와 위험보상에 대한 규정은 제한된 범위에서 Sachsen, Bayern 그리고 Württemberg에서 생겨났다. 여자들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었다. (Für Frauen gab es überhaupt keine Schutzbestimmungen.) 법적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감독은 매우 모호해서 이러한 법률들은 대부분 잘 지켜질수 없었다. 아 물론 양친들에게는 그들의 임금사정이 호전되지 않는한, 그들의 아이들이 같이 노동하는 것이 생활안정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19세기 전반 50년은, 독일에서, 경제적 및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치아래 농업과 수공업 사회의 해체와 산업화 시대로의 돌입이라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아직도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형태들이 뒤섞여 가면서 긴장과 적응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가장 현저한 것은 수공업 부문에서였으며, 수공업은 19세기 중엽까지 “전통과 특권적인 테두리속에 머무르고 있는 조합의 장인과, 조합의 폐쇄성과 고질화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 향상이 불가능한 도제 Group” (Jantke, S.43)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2 Group (장인과 도제)이 모두 Industrieproletariat (산업 프롤레타리아)와 이미 거리가 좁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sup>12)</sup>

Bernstein은 1846년 Berlin에서 나온 통계에 따라 제 3의 진술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Preußen 주요도시에서의 몇몇 업체의 노동자의 숫자를 살펴 보겠다.

12) Helga Grebing. Ibid., S. 22ff.

	Meister	Gesellen	Lehrlinge
Garnweber....	2325	885	300
Posamentiere....	186	130	60
Raschmacher....	427	300	70
Strumpfwirker....	110	150	15
Seidenwirker....	1030	1200	460
Tuchmacher....	114	306	9
Tapezierer....	300	250	?

Garnweber (織物工), Posamentiere (장식제조인), Raschmacher (Serge 제조인) Strumpfwirker(양말 제조인), Seidenwirker (견직공), Tuchmacher (모직공), Tapezierer (실내 장식공). 이들 직업에서 보면 Meister (匠人)가 Gesellen (徒弟)보다 거의 1.5 배의 수치를 나타내 주고 있으며, 이들 Meister 들은 오늘날 우리가 “Proletarisch”로 특징짓는 상황속에서 살았음이 특립없다.<sup>13)</sup> 마지막으로 Helga Grebing 에로 돌아와, 숫자로 보아 소수의 층을 이루고 있었던 공장 노동자들은 자신이, 한편으로는 아직도 토지, 집, 가족과 또 공동의 직업에 의해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사회의 생활형태에 묶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변화해 가는 정세의 유연성과 마찬가지로 《근대적이고, 기업적 경향을 띄어 가고 있는 공장경영의 배타적 요구》(Jantke) 및 그의 노동조건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공장주들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조합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 의식을, 그들의 공장 운영에서 실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종종 공장일에 대한 걱정을 마다하질 않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생산증가와 수익성 그리고 그들 소유물의 보전을 위해서 그들이 사들인 상품인 “노동력”(Arbeitskraft)을 아낌없이 착취하곤 했다.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었던, Preußen 농업개혁 (der preußischen Agrar-Reform)의 이득자인, Elbe 강 동부의 대토지 소유자들은: 그들은 그들 국가의 자유주의적 토지정책과 경제 정책에 의해 이익을 얻었고 그래서 그들 신분상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 특권이 그들에게, 경제적 정책이 성과가 없을 경우에도 지방에서의 정치적 영도력을 —따라서 국가 전체에 있어서도— 보장해 줄수 있다》(Koselleck, S.99). 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소수의 복지의 증진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다수의 빈곤의 증가가 1848년 혁명 발발전 최후의 10년간을 특징지운다.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독일에서는 《적어도 인구의 50~60%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안락하고 안정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고, 궁핍하고 그리고 위기의 비참상과 위협에 직면하여...》(Conze, Pöbel, S.347). 살아가고 있었다.<sup>14)</sup>

13) Max Quarck, Ibid., S. 6

14) Helga Grebing, Ibid., S. 25.



### III. W. Weitling 과 A. Becker

#### A. Wilhelm Weitling(1808-1871)

1808년 10월 5일 Magdeburg에서 태어난 Christian Wilhelm Weitling의 유년 시절에 관해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프랑스군 장교였던 그의 아버지는 Napoleon의 러시아 원정(1812) 때 죽었으며 Gera(Thüringen) 출신인 그의 어머니 Christine Weitling은 그뒤 Schneider Bern과 결혼했다.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해 Weitling은 《가장 비참한 환경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 표현하자니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Magdeburg에서 국민학교를 다녔고 그뒤 1822년에 어느 재단사에서 도제수업을 받았고(zu einem Schneider in die Lehrgeschicht), 그로부터 여성복 재단사 기술을 익혔다. 도제로서 그는 Hamburg, Leipzig, Dresden, Prag, Wien 등지를 떠돌아 다녔다.

Wien에서 -여기에서 그는 어느 태공의 연적으로서, 어느 소녀의 사랑을 받았고 그때문에 그의 연적에 의해 그 도시로부터 추방 당했다.- 1835년 10월 Paris로 가게 된다. 1836년(1월 혹은 4월)에서 1837년 9월 까지 또다시 Wien으로, 그리고 Straßburg를 거쳐 Schweiz에서 1841년 까지 살게 된다. 1835년 Paris에 있을때, Weitling은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 성향을 지닌 망명자들로 이루어진 조직, 《망명자 동맹》(Bund der Geächteten)에, 독일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입했다. 1836년말에 이 동맹은 분열되었고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의인동맹》(Bund der Gerechten)이 형성되었다. Wien에서 Paris로 되돌아 온 Weitling은 이 비밀동맹의 영향력있는 구성원이 되었고 곧 중앙기구의 의장으로 선출된다.<sup>15)</sup> 그의 저술인 「인간은 어떠하며,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Die Menschheit, wie sie ist und wie sie sein sollte)는 의인동맹의 행동강령으로서 원시공산주의적 재산 공동계획을 서술하였다. 프랑스의 여러 사회주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Weitling은 철저한 평등공산주의를 목표로 하며 화폐의 폐지, 재산공동체, 민족경계를 말살하여 모든 인류가 형제가 되는 즉각적·폭력적 변혁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프랑스의 유토피안적 인도에 입각한 사회주의(humanitären Sozialismus)를 무산자 노동계급의 혁명적 사회주의로 전향 완성시켰으나 Weitling 역시 잃어버린 황금시대를 그리는 일종의 향수로 어디까지나 평화롭고 조화된 도시와 농촌의 생활을 유지하려는 수공업자들과 소상인층을 염두에 두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산업노동자층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당시에 독일 수공업 직인층에 Weitling이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sup>16)</sup> <인간

15) Frits Kool und werner Krause, Die Frühen Sozialisten, Walter-Verlag Olten und Freiburg im Breisgau, 1967. S. 465.

16) 오영욱, 독일 초기노동운동과 F.Lassalle, 이대사원 제 17집, 1980, p.90.

은 어떠한가, 어떠한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Weitling 최초의 작품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신질서에 관한 그의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Weitling의 이같은 구상은 <Christ의 가르침과 자연에 기초를 둔 확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이룩하기 위하여 실현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10개의 원칙을 제시한다.

1. 자연의 법칙과 Christ의 사랑은 사회를 위해 이뤄져야 할 모든 법칙의 기초다.
2. 하나의 큰 가정의 유대로 전인류를 통합하고 국적이라든가 분파심과 같은 모든 편협한 개념을 제거한다.
3. 모든 사람에게 노동을 동등하게 분배하고 모든사람이 재산을 동등하게 향유한다.
4. 자연의 법칙에 따른 양성(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 및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5. 모든 상속권과 개인의 사유재산을 폐기한다.
6. 보통선거에 의해 중앙관서가 나타나고, 책임을 지며 교체가 가능하다.
7. 재산의 동등한 분배에 있어서 특권이 있을수 없고 중앙관서의 직책은 나머지 사람들의 노동시간과 대등하게 한다.
8. 모든 사람은 다른 권리외에 자기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유를 갖는다.
9.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 소질을 실행하고 완성시키는 자유와 수단을 갖게 한다.
10. 범죄인은 자유와 평등의 권리아래에서만 처벌할 수 있다.

이상의 원칙들은 몇마디의 말로써 요약할 수 있으니 즉 <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 > (참고; Lev 19:18, Matthäus 22:39)고 하는 것이다. ....

옹변가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Weitling은 1841년 스위스로 파견되었고 거기에서 그의 친밀한 동료인 Simon Schmidt, August Backer (다음의 B.참조). 그리고 Dänemark 출신인 Petersen 및 Christiansen과 더불어 몇개의 공산주의 단체를 만들었고 현존하는 노동자 연맹을 의인동맹으로 전향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한다:..... 1842년 중엽 Schweiz에는 의인동맹의 조직으로서 14개의 단체(약 1,100명의 회원)가 있었다. 1842년 말 Vevey (Vivis)에서 Weitling의 책 《조화와 자유의 확신》(Garantien der Harmonie und Freiheit)이라는 책이 나왔다.<sup>17)</sup> 그것은 독일노동자의 최초의 유력한 출판물이다. 그책은 노동자의 입문서가 되었고 언제나 재판(再版)되어 나왔다. (Sie wird zum Katechismus der Arbeiter und immer wieder neu aufgelegt.)..... 행복은 만족에 있으며, 그것도 자유의 만족에 있다. (Das Glück besteht in der Zufriedenheit und die

17) Frits Kool und Werner Krause, Ibid., s. 466f.

Zufriedenheit in der Freiheit.)<sup>18)</sup>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질서에 대한 Weitling의 비판이, 독특한 필체로 또한 감동깊게 묘사되어 있다. ……

1843년 9월 Weitling은 체포되어 6개월의 징역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으로 2심에서 10개월로 연장되었다. 1844년 5월 쇠사슬에 묶인채 스위스 국경으로 인도되어 독일 경찰에 넘겨졌다. Preußen 당국은 여하간, 그를 추방하려고 하였으며 그결과 그에게 증명서와 여비를 만들어 미국이민을 알선해 주었다. …… Hamburg에 잠깐 체류한 뒤 Weitling은 영국으로 향했다. … 1846년 3월 Weitling은 Brussel에서 처음으로 Marx와 Engels를 만나게 되며, 유명한 Marx/Engels와 Weitling 사이의 토론이 벌어지게 된다. …… 1848년 혁명 발발후 미국에서 독일로 다시 돌아왔으나 48년대의 그의 역할은 무의미하다. 1849년 8월 그는 Hamburg를 떠나야 했고, 49년 말 그는 다시 New York에 도착한다. New York에서 발행된 잡지 《노동자 공화국》이 1850년 짧은 시간에 4,000부가 나가는 최초의 성공 이후에는, 미국에서의 독일 노동자에 대한 그의 영향력도 사라진다. Weitling은 결국 체념하고 사회주의 운동에서 방향을 돌리게 된다. 그는 New York에서 1871년 1월 25일 숨을 거둔다. -그의 가족을 가난속에 남겨 둔채-<sup>19)</sup>

#### B. August Becker (1814-1871)

《Wilhelm Weitling과 함께, 3월 혁명전, 독일 초기 사회주의의 중심인물》인 August Becker는, 1814년 Hessen의 어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고 A. Becker는 Gießen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다. 《붉은 Becker》(그의 친구가 수염의 색깔 때문에 붙인 이름)는 Friedrich Ludwig Weidig 및 Georg Büchner를 알게되고 1834년 그들 2사람이 공동으로 발행한 팜플렛 《헤센의 사자》(Der Hessische Landbote)의 유포를 돕는다.

1835년 Becker는 체포되어 -《검은 책》의 묘사된 내용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 바- 4년간 Darmstadt의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다. …… 1841년 Becker는 Wilhelm Weitling과 아는 사이가 되고 그의 신봉자가 된다. 1843년 Weitling이 체포되자 Becker는 Schweiz에서 Weitling의 영향아래에 있었던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를 맡는다. Becker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의인동맹의 동료인 Sebastian Seiler와 Simon Schmidt다. Becker는 특히 Weitling이 내세우는 공산주의의 Christ적인 성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Weitling이 주장하는 사상 요컨대 계급투쟁과 같은 혁명적 맹세를 거절하고 있다.

그는 1844년 《우리들 시대의 민중철학》(Neumünster) 그리고 그 다음해에 《공산주의자는

18) Ursula Schulz, Die Deutsche Arbeiterbewegung,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81. S. 28.

19) Frits Kool, Ibid., S. 467ff.

무엇을 원하는가》(Lausanne)를 발행했다.<sup>20)</sup> 우리는 대체로 민족적 자부심을 바보짓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자부심을 가질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개인적 재능에 있어서만 가능할 것이다. 어느 프랑스 신병이 자기 나라의 혁명이나 大軍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영국의 국민학생이 자기 나라의 해상권을 자랑하는 것과 같이, 또 스위스의 과격론자가 자기나라의 Wilhelm Tell을 자랑하는 것과 똑같이 우스운 노릇이다. —그리고 만약에 프랑스인, 영국인, 스위스인이 그때문에 서로 다투다면 어느 민족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세사람의 수공업 도제가 불쌍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Die da hielten unter sich wohl eineng großen Rat,  
War unter ihnen wohl die schönste Kappe hat.

이것은 누가 가장 잘 생각하고 있느냐? 를 뜻하는 것이다. 민족적 긍지, 민족적 자부심은 귀족의 자부심, 농민의 못난 자랑, 거지의 오기(傲氣)와 마찬가지로 우스운 구폐(舊弊)다. —그리고 가장 나쁜것은 인간을 눈멀게 하고 정신을 돌게하고, 그리고 박멸시키기가 매우 힘든 규발병(糾髮病) <Weichselzopf = Haarverfilzung durch Kopfläuse> 과 같은 구폐이다. …… 인간의 평등은 민족의 평등을 포괄한다. 왜냐하면 민족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Gleichheit unter den Menschen schließt die Gleichheit der Völker ein, denn die Völker bestehen aus Menschn.) …… 사람들은 Genf (Radical Democratic Social Group이 있음)에 있는 우리들 친구들에게 《청년 독일》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 했다. 그이름은 우리들에게 알맞지 않다: 우리의 일은 결코 독일인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므로. (Der Name paßt nicht für uns ; unsere Sache ist keine deutsche, sondern eine menschliche.)<sup>21)</sup> …… 1848년의 혁명은 August Becker 를 Gießen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신문 《최후의 날》을 창간하고 Hessen지방 의회 의원이 된다. 그를 휩쓸려 들게 한 수많은 언론관계 소송을 치른뒤, 그는 1852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된다. 그위에 : 그는 《신세계에서는 직업이나 명성이 필요치 않았다》. 궁핍은 때로는 그를 서커스 곡예사로 일하게 했고, 마침내 그는 남북전쟁당시 북군의 군목이 되었다. 《그뒤 [1871년 Cincinnati에서 죽을때 까지] 그는 신문기자로서 생계를 꾸려 나갔다. 미국에서는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선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 신학적인 것이 효과가 있었다. : Becker 는 하나의 새로운 종교, 하나의 초종파상의 이상주의에 탐구했다.》(Später [bis zu seinem Tod 1871 in Cincinnati] hat er sich als Journalist durchgeschlagen. Mit sozialistischen Idee war in Amerika nichts zu machen, das Theologische schlug nun durch; Becker schwärmte von einer neuen Religion, einem überkonfessionellen Idealismus.)<sup>22)</sup>

20) Ibid., S. 469ff.

21) Ibid., S. 487ff.

22) Ibid., S. 471.

#### IV. 겨울밤의 동화

물론 이말은 Heinrich Heine 의 작품 Ein Wintermärchen 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선 1830 년과 1850 년 사이 독일에서 自由를 위한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것을 직접 지켜 본 여러 사람들의 몇 작품을 특히 Heine 중심으로 묶은 의미가 강하다고 할 것이다. —Metternich 지배 아래에 있었던 Wien 그리고 Petersburg 는 보수 반동주의 정치의 중심지였다.

영국과 프랑스의 신문 더우기 프랑스의 책은 그들의 국내사정과 더불어 불만스러운 독일인들의 읽을거리가 되었다. 가끔 민주주의적 이념이 사회주의적 이념과 뒤섞여 있었고 이 이념들은 위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이론가들의 공적을 끌어 온 것이다. 많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에게 동일하게 보였다. Heinrich Heine 와 Georg Büchner 는 Proletariats 층을 옹호하고 있었다.<sup>23)</sup> Grabert — Mulot — Nürnberger 의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에 의하면 청년 독일과 정치적 문예 작품의 장속에서 Heine 와 Büchner 를 설명하고 있다.<sup>24)</sup>

“Preußen의 억압으로 진보적 자유주의 사상이 제동을 받자 독일의 현실은 암담해졌다. 진보주의 사상가들이 희망했던 <지상의 천국 Das Himmelreich auf Erden> (Caput I, Vgl.S.150) 이 기쁨을 상실한 <세속적인 눈물의 골짜기 irdischen Jammertal>로 변하고 있다고 작은 소녀가 <체념의 노래> (Caput I, S.149) 를 부르는 것이다. Heine 가 Paris 를 떠나 독일땅에 발을 디더놓았을 때도 바로 이러한, 슬픈 11월이었으며, 그날은 더욱 침울한 날이었다. 바람은 나무들로 부터 낙엽을 앗아가고 그때 나는 독일로 편력한다고 「겨울밤의 동화」 첫귀절로 부터 그는 우울한 감회를 풀고 있다. 그것은 희망과 좌절의 엇갈림이었다. 본래 Heine 가 새로운 유럽 대륙에 희망을 걸었던 것은 자유주의 사상의 새로운 물결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이 Preußen의 억압으로 짓눌려 침울한 장막으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착잡해졌으며 노직 막막한 희망속에서 自由의 실현을 기대했을 뿐이다.

젊은 신부 유럽은 아름다운 自由의 정신과 팔짱을 끼고 약혼을 하고 첫 키스에 도취되어 있다.

승려의 축복은 빠져 버렸구나 하겠지만 머잖아 부부로 인정되리라.

라고 自由의 물결에 휩쓸린 당시의 시대 정신에 기대를 걸면서, 이러한 미래에 체념과 좌절의 분위기로 에워쌓인 당시의 독일현실을 얼어붙은 <눈물의 골짜기>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Heine 가 국경선을 넘을때 역에서 하아프를 켜는 어린 소녀의 신비에 찬 노래소리가 바로 이러

23) Ursula Schulz, Ibid., S. 21.

24) Grabert-Mulot-Nürnberger,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Bayerischer Schulbuch-Verlag, 1982. S. 199ff.

한 희망으로 부터의 체념을 뜻하는 노래였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체념의 상태에서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신비한 희망의 여운을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여운은 독일적인 전통에서 찾아 볼 수 있으리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비춰주고 있었다. 이 소녀로부터 얻은 새로운 힘을 Heine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의 영혼속에 떠오르는 가장 신성한 별들, 그 열정의 별들이 거칠게 타오르며 불꽃 이론 시냇물에 흐른다. 나는 놀랍게도 이에 힘 입어 참나무라도 꺾을 수가 있을 듯 했다네!

영혼속에 신성한 별들이 떠오르고 불꽃의 시냇물에 힘입은 나는, 독일 정신의 표상인 참나무라도 꺾을것 같다고 한 표현은, 이제 마술적인 신비주의에서 새로운 사상을 회복하여 보자는 뜻이었다. Heine는 계속해서

내가 독일땅을 밟은 이래  
마법의 액체가 온몸에 흐르게 되었으며  
그 거대한 괴물은 다시 母地를 감동시키고  
그에게는 새로운 힘이 자라고 있다.

고 말한다. 여기서 Heine는 어머니란 비유를 통하여 전설과 신비에 에워쌓인 독일의 전통사상에서 거인적인 새로운 힘을 찾아 보자는 비정치적 낭만주의를 의식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치적이며 신비적인 낭만주의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독일의 사상적 통합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Heine는 당시의 프로이센 왕국이 시도했던 독일의 통합운동이, 외형적인 정치적 통합을 위해 관세동맹을 제창한 것으로 믿었고 사상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검열을 통한 물리적인 통합만을 기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때문에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사상이 탄압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탄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상적 통합운동>을 이루려면 <신비적 낭만주의 사상운동>이 독일의 정치적 사상적 통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것이라고 생각했다.”<sup>25)</sup> 참고로 Heine 전집, Insel Heine에 실린 Ein Wintermärchen (1844년 1월작) Caput I을 소개한다.

25) 오한진, 하이네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77, pp.129-132.

Deutschland

Caput I

im traurigen Monat November wars,  
Die Tage wurden trüber,  
Der Wind riß von den Bäumen das Laub,  
Da reist ich nach Deutschland hinüber.

Und als ich an die Grenze kam,  
Da fühlt ich ein stärkeres Klopfen  
In meiner Brust, ich glaube sogar  
Die Augen begunnen zu tropfen.

Und als ich die deutsche Sprache vernahm,  
Da ward mir seltsam zu Mute;  
Ich meinte nicht anders, als ob das Herz  
Recht angenehm verblute.

Ein kleines Harfenmädchen sang.  
Sie sang mit wahren Gefühle  
Und falscher Stimme, doch ward ich sehr  
Gerührt von ihrem Spiele.

Sie sang von Liebe und Liebesgram,  
Aufopfrung und Wiederfinden  
Dort oben, in jener besseren Welt,  
Wo alle Leiden schwinden.

Sie sang vom irdischen Jammertal,  
Von Freuden, die bald zerronnen,  
Vom Jenseits, wo die Seels schwelgt  
Verklärt in ewgen Wonnen.

Sie sang das alte Entsagungslid,  
Das Eiapopeia vom Himmel,  
Womit man einullt, wenn es greint,  
Das Volk, den großen Lümmel.

Ich kenne die Weise, ich kenne den Text,  
Ich kenn auch die Herren Verfasser;

Ich weiß, sie tranken heimlich Wein  
Und predigten öffentlich Wasser.

Ein neues Lied, ein besseres Lied,  
O Freunde, will ich Euch dichten!  
Wir wollen hier auf Erden schon  
Das Himmelreich errichten.

Wir wollen auf Erden glücklich sein,  
Und wollen nicht mehr darben;  
Verschlemmen soll nicht der faule Bauch  
Was fleißige Hände erwarben.

Es wächst hienieden Brot genug  
Für alle Menschenkinder,  
Auch Rosen und Myrten, Schönheit und Lust,  
Und Zuckererbsen nicht minder.

Ja, Zuckererbsen für jedermann,  
Sobald die Schoten platzen!  
Den Himmel überlassen wir  
Den Engeln und den Spatzen.

Und wachsen uns Flügel nach dem Tod,  
So wollen wir Euch besuchen  
Dort oben, und wir, wir essen mit Euch  
Die seligsten Torten und Kuchen.

Ein neues Lied, ein besseres Lied,  
Es klingt wie Flöten und Geigen!  
Das Miserere ist vorbei,  
Die Sterbeglocken schweigen.

Die Jungfer Europa ist verlobt  
Mit dem schönen Geniusse  
Der Freiheit, sie liegen einander im Arm,  
Sie schwelgen im ersten Kusse.



Und fehlt der Pfaffensegen dabei,  
Die Ehe wird göltig nicht minder—

Es lebe Bräutigam und Braut,  
Und ihre zukünftigen Kinder!

Ein Hochzeitskarmen ist mein Lied,  
Das bessere, das neue!  
In meiner Seele gehen auf  
Die Sterne der höchsten Weihe—

Begeisterte Sterne, sie lodern wild,  
Zerfließen in Flammenbächen—  
Ich fühle mich wunderbar erstarkt,  
Ich könnte Eichen Zerschlagen!

Seit ich auf deutsche Erde trat,  
Durchströmen mich Zaubersäfte—  
Der Riese hat wieder die Mutter berührt,  
Und es wuchsen ihm neu die Kräfte.

Karl Marx, Friedrich Engels, Moses Heß, Karl Grün, Hermann Püttmann, Fr. Schmidt, W.H.Riehl, F.J.Buß, Karl Biedermann, Gottfried Keller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시대의 증인들이다. “공장노동자의 정치적 위치 역시 암담하다. 그의 공장주에 의 존 때문에 그는 정치적 권한을 향유할 수 없다. 비록 그가 그 권한을 갖는다 해도 그의 공장주의 도구로서 그의 기분에 맞춰 권한을 행사해야만 할 것이다.”<sup>27)</sup> (F.J.Buß)

## V. 결 론

1850 년대의 본격적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의 독일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속에서 Proletariats의 탄생을 살펴 보았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수공업자들이 공장노동자가 되든가 상업을 시작 하든가 해외로 이주하든가 하는 등등의 복잡한 와중에서 W.Weitling이라는 재단사의 〈조 화와 자유의 확신〉이 나오게 된것이다. “中生代の 기후속에서 살던 공룡이 Mammon의 저주를

26) Hans Mayer, Insel Heine, Band 1, Insel Verlag, 1968. S. 424ff.

27) Ursula Schulz, Ibid., S. 23.

입에 담으며 사라진 것을 기억하면서, 인류를 하나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눈물이 이슬방울이 되어 지구를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自由의 시간을 기다리자”<sup>28)</sup> 라고 Weitling은 의젓고 자연의 법칙과 Christ의 사랑을 절규하면서, 유족을 또다시 가난속에 남긴채 미국땅에서 죽어 갔다.

“독일역사를 기술하려고 하는 사람은 독일 구석구석을 살살이 찾아 다녀야 한다. (Man muß jeden Winkel Deutschlands durchstöbern, Wenn man über deutsche Geschichte schreiben will.)”<sup>29)</sup> 라고 한 Heinrich von Treitschke의 말과 “노동자의 입장을 올바르게 판단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노동자 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것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痛恨(통한)에 대하여 어떠한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Wer die Lage des Arbeiters richtig beurteilen will, muß selbst Arbeiter sein, sonst kann er keinen Begriff haben von den Mühem, die damit verbunden sind.)”<sup>30)</sup> 라는 Weitling의 말로써 결론에 가름한다.

28) Ibid., S. 29.

29) Paul Kirm, Einführung in die geschichtswissenschaft, Sammlung Göschen 1972. S. 26.

30) Ursula Schulz, Ibid., S. 28.

**Zusammenfassung**

**Die Geburt des Proletariats**

*Han Kee-young*

Die Entstehung eines Proletariats war das gravierendste Ergebnis des gesellschaftlichen Umbruchs, den die industrielle Revolution im letzten Jahrhundert (um 1850) in Deutschland bewirkte. Die drückende Armut des neuen Standes führte zu einer wachsenden Verbreitung sozialistischer Ideen, die Verbesserung seiner Lage, die Eingliederung als gleichberechtigter Staatsbürger in die Gesellschaft und die Übernahme politischer Verantwortung erreichen konnte. Hier habe ich versucht, den gedanken zu betrachten, der im Hauptwerk von W. Weitling "Garantien der Harmonie und Freiheit" behandelt wird.